

구성되는 관계에 대한 이해, ANT에 대한 길라잡이 : 번역과 동맹(최병두 외, 2017 푸른길) 서평을 대신하여

이용재*

1. 시작과 책에 대한 소개

서평(書評)을 쓴다는 것이 이렇게 고된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다. 무엇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한마디가 지금처럼 뼈저리게 다가온 적은 없었다. 이 한마디가 마음에 머물러 단 한 줄도 나가지 못하게 한동안 내 발목을 잡고 있었다. 솔직히 나에게 서평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작업이었을지도 모른다. 다른 이가 쓴 글을 고개 끄덕이면서 읽기도 바쁜 사람에게 다른 이가 쓴 글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넘치는 작업이었을 것이다.

후한말 위나라의 동우(董遇)가 했다는 “독서백편기의자현”(讀書百遍其義自見)이라는 글귀를 좋아한다. 이 글귀는 힘들 때마다 매번 나에게 돌과구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직면한 이 난관은 백번 읽어 그 뜻을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생각하는 서평은 단순히 읽어서 이해하는 것 이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저자가 독자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알아채고, 서평을 읽는 저자가 고개를 끄떡일 수 있는 영민함이 필요한 작업이다.

저자가 고개를 끄떡일 수 있는 영민함은 고사하고, 저자가 독자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때때로 놓치는 내가 이 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

* 경상북도의회, 정치학, laski@hanmail.net

기하는 것조차 사실 무리한 작업이다.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에 대해 최소한 가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가늠을 위해서는 그 눈높이라도 맞추어야 한다. 그런데 애초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책을 읽어야 하는 상황에서 서평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다. 난감한 마음에 서평을 잘 쓰게 해준다는 글들을 찾아 읽어보기도 했지만, 내가 원하는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결국 서평이란 이름으로 서평이 아닌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 이 글은 굳이 말하자면 실패한 서평, 길을 가보지 못한 사람의 길라잡이 정도가 될 것 같다. 또한 이 책이 ANT와 ANT를 활용한 연구사례를 소개하는 학술서이기는 하지만, ANT가 아직은 생각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소개를 함께 하는 것이 좀 더 유용한 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번역과 동맹』에 대한 소개와 함께 ANT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내게 주어진 수많은 난관들을 고스란히 안고서, 이 책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번역과 동맹』은 2017년 8월 30일에 푸른길에서 발간한 전문학술서로 저자는 최병두, 김연희, 이희영, 이민경-제6장에는 이교일이 공동저자로 나오기는 하지만- 4명이다. 부제는 “초국적 이주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사회공간적 전환”이다. 특정한 사회공간을 뛰어넘는 초국적 이주자들의 이야기를 행위자-네트워크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 ANT)은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과학기술의 사회학적 이해를 위한 틀로 제시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사회학, 지리학, 정보통신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 책의 모두 5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는 2장씩, 즉 2편의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의 구성에 대한 저자의 설명을 빌리자면, 1부는 이론적 설명에 대한 내용으로 ANT가 초국적 이주연구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있으며, 2부는 초국적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과정에서 이주자들이 형성하고 있는 행위자-네트워크가 직장과 가정의 공간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변화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3부는 ANT를 응용하여 이주한 초국적 이주여성의 삶의 재구성과 그 과정에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제4부는 초국적 이주자의 경험과 정체성의 전환과정에 ANT가 유의미하게 응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제5부에서는 초국적 이주와 관련된 지원조직들에서 형성되는 행위자-네트워크의 역할과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각 장별로 살펴보면 제1장 “관계적 이론에서 행위자-네트워크이론으로”는 초국적 이주에 대한 연구방법론으로 행위자-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자-네트워크, 번역과 동맹 그리고 권력, 초국적 이주에 대한 위상학적 접근을 위한 공간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러한 개념들이 초국적 이주연구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제2장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사회공간개념의 재구성”은 행위자-네트워크에서 4가지 공간개념인 지역적 공간, 네트워크 공간, 유동성의 공간, 화염의 공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위상학적 공간 개념의 이론적 경험적 함의를 위해 들뢰즈와 아감벤의 공감개념에 대해서 함께 소개하고 있다. 제3장 “초국적 노동자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아상블라주”에서는 ‘아상블라주’라는 개념을 통해, 일자리, 가정, 국가에서 초국적 노동이주의 행위자-네트워크가 어떻게 상호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제4장 “초국적 결혼이주가정의 음식-네트워크와 경계 넘기”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에서 음식-네트워크의 변화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보여준다. 제5장 “결혼-관광-유학의 동맹과 신체-공간의 재구성: 아시아 여성 이주자들의 사례”는 결혼이주여성이라 불리는 블랙박스 속에 매몰되어 있는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모습을 행위자-네트워크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추적하고 있다. 제6장 “결혼이주여성의 미디어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삶의 전환”은 초국적 이주여성으로 이주해오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등의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제7장 “탈북-결혼이주-이주노동자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정체성의 변위: 북한여성의 생애사 분석”은 북한여성이 중국-북한-남한 사이에서 형성되는 개인의 정체성 변화와 네트워크 형성과정을 추적하여, 환경의 변화 속에서 변위되는 정체성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제8장 “노동-유학-자녀교육의 동맹: 몽골 노동이주가정의 이주·정착·귀환 과정 분석”은 몽골 이

주노동자가 한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거나 혹은 귀환하는 과정에서 노동, 유학, 자녀교육 등을 통해 형성되는 행위자-네트워크 형성과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제9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조직의 안정화 : 혹은 서비스 이용자는 어떻게 주변화되는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형성되는 행위자-네트워크를 분석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의무통과지점이 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정책결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이 대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10장 “미등록이주노동자 공동체의 특성과 역할 : B시의 이주민 선교센터의 사회공간 분석”은 이주민 선교센터를 통해 이주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공간을 (재)구성하고, 공간의 관계적 특성이 이주노동자들의 이주-정착-귀환의 순환과정에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ANT가 기존의 초국적 이주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비인간 행위자들의 행위들에 대해 주목하면서 네트워크 안에서 상호관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한다. 저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ANT가 실질적인 내용을 가진 사회이론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으며, 단순한 방법론이거나 추상적인 존재론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리고 비인간행위자의 행위는 결국 인간행위자의 해석을 통해 드러나는 도구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2. ANT에 대한 이해와 한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번역과 동맹』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 이론이 이주자들과 이주공간에 대한 (재)구성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 어떻게 응용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학술서이다. 저자가 책 제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번역과 동맹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번역이란 “행위자-네트워크 간 연결을 통해 좀 더 강력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데 필요한 절차”이며, 또한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 연합을 이루는 과정”이다. 번역은 “행위소가 행위자가 되는” 과정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다. 따라서 번역의 과정이 이

루어지면, 이를 주도한 행위자는 “동원된 다수의 행위자를 대변하는 권리를 갖게 되며, 더 큰 권력을 얻게”된다. 번역이란 결국 특정한 네트워크 안에서 ‘프로토콜’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네트워크에 소통되는 문법을 정함으로써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동시에 그 네트워크 안의 행위자가 되는 작업이 번역이다. 이에 반해 동맹은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를 끌어들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확대 또는 변화하기 위한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동맹은 이미 네트워크 안에서 ‘행위자’들 상호간의 확대 혹은 변화로 이미 구성된 네트워크 확대·변화와 재구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책의 제목으로 제시된 “번역과 동맹”은 인간 혹은 비인간이 네트워크 안의 행위자가 되는 과정과 형성된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상호 혹은 새로운 행위자 등을 통해 확대·변화·재구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책은 ANT를 번역과 동맹을 통해 인간 혹은 비인간 행위자들이 함께 네트워크 통해 만들어내는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ANT는 기존의 네트워크 이론과 달리 행위자를 “스스로 행위를 하거나 타자에 의해 행위성이 부여된 모든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함께 비인간인 사물 또한 행위자로 본다. 따라서 ANT는 “사물 그 자체의 본질을 추구하는 근본주의를 부정하고, 사물들 간 상호관계성을 강조하는 관계론적 존재론과 연구방법론을 새롭게 구축”한다. 이처럼 ANT는 인간과 함께 인간이 아닌 기술, 사물도 행위자로 간주함으로써, 사회적 현상을 인간-비인간 행위자 간에 발생하는 관계적 효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ANT는 “네트워크를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실체들 간 비구체화된 관계들의 집합”으로 간주하고, 번역, 즉 행위소가 행위자가 되는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행위자와 네트워크를 분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 현상 속의 모든 행위자는 네트워크이며, 네트워크도 어떤 행위자가 되었다. 사회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 네트워크에 인간과 함께 비인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술과 사물 또한 사회문화적 요소로부터 독립된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여 함께 역동하는 행위자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ANT는 ‘비인간적 존재’에게도 행위자로서의 능력을 부여하고, 인간과 비인간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하면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결합하

여 안정된 네트워크를 이루는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고 행위자들 간에 네트워크가 결합하는 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서 저자는 ANT는 ‘일반화된 대칭성’(Generalized Symmetry)을 강조한다고 지적한다. 일반화된 대칭성으로 말미암아 ANT는 주관과 객관의 이분법적 도식을 벗어나,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가 동등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기술과 같은 비인간이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행위자이고, 인간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위자의 권력은 그 자신의 능력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위자들과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본래 강하거나 약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과의 동맹을 통해 강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고정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본질적 차이를 부정하는 ANT는 사실과 가치, 객관과 주관 등의 경계를 무력화하여 위계를 없애는 새로운 경계-넘기를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는 항상 새롭게 구성되며,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최병두(2015)는 ANT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어떤 고정적 본질을 가진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끊임없는 관계의 구성이 바로 세상의 다중적 실재라고 주장한다. 공간이 관계에 의해 중첩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면, 공간을 관계의 산물이라고 지적한 Massey(2005)가 관계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물질적 실천에 착근되는 과정이라고 했듯이, 공간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다.

다양한 관계를 통해 구성되는 공간은 사물들 사이의 관계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처럼 사물들의 관계가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물들은 어떤 선험적 정의를 가지거나, 고정된 관계로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관계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공간에 대해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통적 장소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공간의 의미는 다수의 감정들이 중첩되면서 형성되며, 행위자들의 관계를 통해 공간은 새롭게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관계적 사고는 어떤 현상이 발생한 장소 혹은 공간 그 자체보다는 그러한 현상이 관련된 방식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Murdoch, 2006). 그러나 이처럼 사물들이 형성

하는 관계에 주목하다보면, 관계를 형성하는 사물들을 간과하게 된다. 사물들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사물과 관계의 실재를 동시에 강조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이상블라주(asssemblage)이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배열, 설치, 치장 등의 의미로도 사용한 이상블라주는 시스템을 형성하는 구성요들의 집합이자 배열이다. 사물은 요소들의 관계를 통해 구성되지만, 관계가 구성요소들을 구속하지 않고, 구성요소들의 집합이 전체로서의 관계인 시스템의 특성과 동일한 것도 아니다. 즉 부분이 전체를 구성하지만, 전체가 부분을 구속하지 않고, 부분의 합이 전체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상블라주는 때로 ‘느슨하게 결합된 시스템의 집합’을 의미하기도 한다.

제3장은 일자리, 가족, 국가를 구성하는 이상블라주를 중심으로 초국적 이동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ANT에서 이상블라주 개념을 차용하게 된 것은 관계 자체에 대한 설명이 현상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하기는 하지만, 관계를 구성하고 권력을 작동하는 행위자들의 결합도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저자 또한 이상블라주에 대해 “장소들 간 일단의 연계를 강조하는 것 이상으로, 이는 역사, 노동, 물질성, 수행 등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이상블라주는 네트워크 설명에서 간과되기 쉬운 재결합하기와 탈결합하기, 분산과 전환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고 설명한다.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관계들의 중첩을 통해 혼종적으로 구성된다. 동시에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다중적 관계로 구성된다.

이런 이유로 ANT는 두 가지 핵심적인 유의성을 가진다. 첫째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또는 혼종적 결합체(이상블라주)에 관심을 두고, 여러 유형의 이분법을 극복하고자 한다. 둘째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관계적 또는 위상학적 공간을 사유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어떠한 선형적 관계의 형태도 상정하지 않는다. 행위자 간의 (재)구성과 (재)결합 그 자체에 주목함으로써 ANT는 구성되는 관계에 대해 편견 없이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ANT는 이미 책에서 밝히고 있듯이 실제적 내용 없이 사물들을 관계로만 파악하는 방법론에 불과하며, 관계 속에 내재된 모순이나 긴장관계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다는 비판과 실질적 내용을 가진 사회이론이기 보다는 단순한 방법론 혹은 추상적 존재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ANT에 대한 설명과 이를 활용한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NT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한계들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ANT의 한계는 행위자-네트워크의 역동을 변화시키는 전략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비인간행위자들이 인간행위자들의 인식과 판단,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들 자체를 행위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선택적 행위의 도구로 보아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방법론의 관점에서 ANT는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규칙과 이론으로부터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설명하는 기존의 과학적 방법에서 벗어나, 인간-비인간 행위자의 네트워크 형성과정을 집중하는 데, 이는 문화기술지 연구방법론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더하여 책에서 제시한 사례연구에서도 드러나듯이, ANT가 채택하고 있는 문화 기술적 접근 방식은 면접대상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의사소통의 한계로 말미암아 연구대상을 제한하고, 화자(話者)에 의해 기술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사물, 상징 등)에 대한 기술은 인간 행위자의 내적 의도에 따라 자의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3. 『번역과 동맹』, ANT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선불리 이야기하자면, 근대에서 강조한 보편성은 현상에 대한 설명을 위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주목하고, 반복되지 않는 잔여물에 대한 설명을 간과해 왔다. 반복되는 현상들 속에서 드러나는 속성이 바로 설명할 수 있는 핵심으로서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근대 이후 인식의 지평이 더욱 확대되면서, 더 이상 반복되어 드러나는 것들만으로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어긋남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의 본질이 되었다. 오늘날 설명해야 하는 현상이란 이미 드러난 것들이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혹은 곧 드러나게 될 것들이었다. 이와 함께 주체와 객체의 경계를 따른 설명도 한계에 도달했다. 오늘날 설명해야

하는 현상은 경계에 따라 나타나지도, 경계에 따라 설명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처 보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재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재현에서의 차이는 모조를 진품의 재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의 진품이 되도록 하였다. 그 사이의 어긋남이 차이로서의 현상을 만들어 낸다.

ANT를 통해 제기되는 쟁점은 연구방법으로서 포획되지 않는 것들, 드러난 현상들 사이에 드러나지 않은 잔여물, 보이지 않는 사실들에 대한 직시를 가능하게 한다. 이미 밝히고 있듯이, 그동안 초국적 이주에 대한 사례연구는 행위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행위자 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각각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설명하는 데 ANT는 분명 유용성을 가진다. 지적 하듯이 그동안 초국적 이주노동에 대한 연구는 이주자들의 개별 행위에 관심을 가지거나, 한정된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이 중심이 된 관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ANT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인간행위자로서의 인식의 확장, 분석보다는 기술로의 치우침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은 드러나게 한다. 제5장의 연구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ANT를 통해 그동안 블랙박스라는 이름의 무관심을 해체하고, 그 속의 관계들을 새롭게 규정하면서, 국적이라는 비인간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네트워크의 차이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밝히고 있듯이,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 속에서 하나의 개별적인 사례가 그 자체로 ‘구체적인 일반성’을 담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더구나 더 나아가 “개별적이고 예외적인 사례가 담고 있는 복합적인 경험의 층위”를 통해서 사회 현상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네트워크 속에서 비인간행위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제9장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제10장 이주민 선교센터에 대한 연구사례를 통해 잘 나타난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비인간행위자는 인간행위자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ANT가 가지는 이론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적용의 한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초국적 이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이주를 통해 각 국가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이주를 통해 들어온 것은 ‘인간’들이었다. ANT는 그 ‘인간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주를 통해 들어

온 것은 각자 그들만의 네트워크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인간’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내고 있다. 『번역과 동맹』은 ANT에 대한 소개를 통해 비인간 행위자의 행위와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 자체에 주목함으로써 인간 행위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그동안 ‘블랙박스’ 안에 매몰시켰던 행위자들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ANT가 사회과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보여주는 이론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불리 대답할 수 없다. 하지만 비인간 행위자를 드러나게 하고, 관계의 구성을 통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번역과 동맹을 통해 생성되고 소멸되는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기존의 틀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관계를 드러나게 한다는 점에서 ANT에 대한 소개와 이를 활용한 연구를 소개하고 있는 『번역과 동맹』은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